



21-20
1-10
+ 13th rd -

2대리구 신명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2. 01. 30. (다해) 제2306호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2독서** 1코린 12,31-13,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4,21-30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생.사.나’? 그게 뭐죠?



사회복지국 차장 | 허진혁 바오로 신부

2006년 3월, 이란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마침 휴학 중이었는데, 당시 한 달간 일을 하며 모았던 생애 첫 월급을 지진 피해 성금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족자카르타에 지진이 일어나서 또다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들의 소식에 마지막 월급을 성금으로 보내는 대신에, 이번에는 직접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록 의료나 통역 같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소위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한 비영리시민단체(NGO)를 통해서 약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나눔과 봉사의 기회가 가톨릭교회 안에 더욱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신학생이던 당시에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큰 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교구 사회복지 10개 법인과 100여 개 시설 전체를 지원하는 ‘밀알회’이고, 두 번째는 해외선교 및 해외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입니다. 지난 2011년 교구 설정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생명사랑나눔운동’은 현재 11개국 21개처(교구 해외 선교지 포함 8개 수도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명사랑나눔’(생사나)이라는 이름답게, 주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되거나 더욱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사업에 중점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세계 각지에서 청해오는 도움 요청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예산 심사를 통해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의 지원금을 보내드리거나, 아예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비록 심사에는 떨어졌지만 사실 절박한 상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외국의 수많은 은인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특별히 국경을 넘어서는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미약해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함께 모이면 큰 사랑을 이루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해외 지역에서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



룻 (룻 1~4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룻은 유다의 8대손 보아즈와 혼인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된 모압 여인입니다(마태 1,5). 이는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신명 23,4)는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섭리와 보편적 구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판관 시대에 유다 베들레헬 출신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여의고 고향 베들레헬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부가 된 두 모압인 며느리들이 고향에서 새 삶을 살도록 놓아주려 했지요. 서로가 나를 책임지라 다룰 법도 하지만, 세 과부는 서로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서럽게 읊니다. 그 가운데 첫째 며느리 오르파는 떠나갔지만, 둘째 룻은 시어머니에게 안겨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룻 1,16-17) 예로부터 룻의 이 말은 가족애와 하느님 사랑에 무뎠진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곤 했습니다. 가난과 편견에 부닥쳐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룻의 결심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고 백하며 그분 곁에 머물렀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요한 6,68).

자기 고향에 찾아든 이방인을 받아들여 가족이 되어주었다가, 도리어 자신이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된 그 처지가 참 고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타향에서의 나그네살이라 해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구원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성조 아브라함(창세 12,10-

20; 20,1-18)과 이사악(26,1-33)과 야곱(46-50장)이 보여준 바이지요. ‘이방인 과부’ 룻은 이스라엘의 최하층민으로서 아무런 보호나 기반 없이, 남의 추수밭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룻 2,7) 이삭을 주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마태 12,1-8), 룻은 가난하고 주린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였지요. 고된 노동을 마친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나오미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룻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룻 2,19-22; 3,16-18) 하느님의 구원이 싹을 틔웁니다.

마침내 룻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가문의 구원자 보아즈와 혼인하여, 훗날 다윗의 조부가 될 오벧(주님의 ‘종’이란 의미)을 낳습니다. 룻기의 히브리어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다름 아닌 **גִּיּוֹר**(다윗)인데요, 이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이의 초라한 일상이라 해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바로 그 곳에서 구원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하느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녀를 봉양했던 룻, 진심으로 며느리의 행복을 바랐고(1,8-9) 딸처럼 아꼈던 나오미(2,2,22; 3,1,16),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느님의 계명(레위 19,9-10; 신명 25,5-10)에 충실했던 보아즈,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서로에게 보이는 신뢰와 선의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애써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간직한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 상호이해와 관용이라는 소박한 덕목들로 구원의 이삭을 거두며, 우리 가족들 모두의 구원으로 향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루트**



프란치스코 교황과 피시켈라 대주교

피시켈라 대주교, 2025년 희년 표어 “희망의 순례자들”

2022년 1월 13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호열 신부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Rino Fisichella) 대주교가 가톨릭 방송 네트워크 텔레파체(Telapace)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교황이 오는 2025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희년을 준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희년의 표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년의 표어가 “두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설명했다. 곧, “희망의 순례자들”이다.

효율적인 조직

다른 모든 표어와 마찬가지로 이번 희년의 표어도 그 여정의 의미를 요약하는 용어가 선택됐다. 그 용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기간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희년 준비 책임을 맡은 피시켈라 대주교는 오는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준비해 영향을 주는 것”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준비 작업을 온전히 활성화하기 위해 교황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벌써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순위 중 하나는 희년에 로마로 오는 신자들과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희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2년 동안 의료 비상사태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순례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순례자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로마 시, 라치오 주, 이탈리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0개의 성탄 구유-바티칸” 전시회, 하나의 복음화 작업

피시켈라 대주교는 지난 1월 9일까지 성 베드로 광장의 베르니니 회랑에서 열린 “100개의 성탄 구유-바티칸” 전시회의 성과에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가 일종의 “복음화의 위대한 작업”이었다며, 전시회 관람객 수가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9만 416명”이 다녀갔다. 이 수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교서 「놀라운 표징」(Admirabile signum)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성탄 구유의 “놀라운 표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많은 어린이, 많은 젊은이, 많은 가정이 전시된 작품들을 보려고 성 베드로 광장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구유를 보려고 성 베드로 광장을 찾은 것은 지난 1223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탈리아 그레치오에서 성탄구유를 처음으로 만들어 경배한 일이 지금도 살아 있는 관습임을, 또한 우리의 기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구유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풍요로운 전통을 나타냅니다.”

이조이(李召史) 막달레나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장성한 뒤 그녀는 금산 고을에 살던 김성서 프란치스코의 아우와 혼인을 하였으나 19세 때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에 앞서 그녀에게 수계를 열심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뒤부터 막달레나는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시부모에 대한 효도에만 전력을 다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천주께서 비교적 덕을 닦기 쉬운 처지에 두어 주신 것을 자주 감사하였다. 그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대재와 소재를 지키면서 극기를 실천하였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힘썼고, 무엇보다도 무식한 이들을 가르치는 귀찮은 일을 기꺼이 맡았다.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이조이 막달레나는 전라도 광주에 있던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압송된 그녀는 문초를 받는 동안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갖가지 형벌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옥으로 돌아온 뒤 막달레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함께 있는 신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만 마음을 썼다. 그녀는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무엇보다 천주님과 더불어 솔직하게 행동합시다. 그분에게 충실하여 모두 함께 천국에 올라갑시다. 하나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이조이 막달레나
(1808 ~1840년)

이어 감사 앞으로 끌려가 형벌을 당하는 중에도 막달레나는 한결같이 굳센 마음을 나타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였다. 그녀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조이는 천주교 신앙을 신봉하여 천당 지옥설을 깊이 믿었으며, 죽은 남편의 혼계를 버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다시 천주교 교리를 배우겠다고 하였으니, 그 독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오직 빨리 죽기만을 원한다고 하였으니, 지체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2022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정신철 주교님의

2022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는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축성 생활의 날 담화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의

2022년 축성 생활의 날 담화는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혼인의 사랑 ⑬

[대화] 대화는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며 키워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살아가고 스스로 생각하며 행복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지니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 또는 '조화로운 다양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십시오. 끝으로 알찬 대화를 위해서는 말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내적 부요가 필요합니다. 이 내적 부요는 독서와 자기 성찰, 기도,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개방성으로 증대됩니다. (『사랑의 기쁨』, 136~141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생태실천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 실천해 보기

(대중교통 이용, 외식자제, 한끼 단식 실천 등)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5호 정답

1. ② 2. 다섯 번째 3. 의로운 싹, 공정, 정의, 우리의 정의 4. ④

으뜸 중에 으뜸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5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2.6(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효소단식 힐링 피정

기간: 2.3(목)~6(일), 2.10(목)~13(일)

내용: 면담 및 영성상담가능

참가비: 25만원(효소포함) / 정원: 11명

지도: 문봉한 신부(성모솔숲마을원장)

문의: (054)373-3955 / 010-5878-9922

병자의 날 치유 피정

일자: 2.5(토)

시간: 14:00~17: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집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2.12(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신청: 2월말까지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2022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10:00, (월)20:00

신약반: (화)10:00, (화)20:00

심화반: (수)10:00, (월)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교구 문화홍보국, 가톨릭푸름터 후원금 전달

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지난 1월 17일(월) 오후 3시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인 가톨릭푸름터(원장 : 이윤숙 레지나)를 방문하여 2022년 교구 북캘린더 판매 수익금 및 기부금 750만원을 미혼모돕기 후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북캘린더를 구매해 주시고 기부해 주신 교형자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학사 취득 주말반 신입생 모집

지원대상 직장인, 만학도, 주부 등
입학문의 인생이모작코칭센터 ☎851-3022

- 유아교육과
- 전산세무회계과
- 사회복지과
- 드론항공국방과
- 철도전기과
- 글로벌조리과
- 글로벌뷰티케어과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Since 1963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아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관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 서 재 신 (베드로) · 장 주 현 (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욱 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영환(베네딕도) 몬시뇰
2014년 2월 1일

행사 | 모임

제10차 약혼자주말

기간: 2.25(금)~27(일)

장소: 사수동 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예비부부,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마감: 2.13(일) / 선착순 8커플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공부

일시: 3.2~4.27 매주(수) 13: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윤일마 수녀

마감: 2.20(일) / 10만 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육 | 모집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재능 기부 전문상담사 모집

자격: 관련학과 석사 및 2급 자격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마감: 2.11(금) / 문의: 250-3100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분야: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제13기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 모집

일시: 2.21(월)~25(금) 9:30~17:00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예언서, 요한계시록, 신론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3.2(수) / 문의: 660-5105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성체조배: 2.8(매주 화 11:00~11:40)

기도훈련: 2.11(매주 금 6주) 14:00

한 달 한 책 깊이 읽기:

3.11/3.25(둘째, 넷째 금) 14:00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6차: 2.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3.15~6.21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7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채용 | 안내

국우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사용 가능 자,

신앙생활의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325-0904 / (010)5414-7997

칠곡가톨릭병원 외과 전문의 채용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전문분야: 유방·갑상선 초음파 및

시술(VAB), 하지정맥류 등

문의: 320-2079, 2122

한국SOS어린이마을(법)

동촌성모유치원 원장 채용

자격: 원장 자격 소지자

문의: 한국SOS어린이마을,

984-6928(홈페이지 참조)

요한바오로2세어린이집 조리 보조 채용

모집: 1명

시간: 9:00~14:30

문의: 627-4006 / (010)8563-5248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메주 판매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 해밀원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메주 된장을 만듭니다.

1되(1장) 19,000원

010-9240-7533

유영구(다마소) 최은주(오티리아)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